

#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무속적 효윤리의 방향

신 태 수\*

- |                     |                     |
|---------------------|---------------------|
| I. 문제제기             | IV. 무속적 효윤리의 사상적 특징 |
| II. 효의 위상과 그 지향     | 1. 인간 능력의 존재론적 성찰   |
| III. 무속적 효윤리의 구현 방법 | 2. 효윤리 범주의 인식론적 확장  |
| 1. 공간 이동            | V. 결론               |
| 2. 神性 확장            |                     |

## 국문초록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기는 효녀이기도 하고 효녀가 아니기도 하다. 무속적 관점에서 보면 효녀이고,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효녀가 아니다. 감은장아기가 서사무가에 등장하므로, 무속적 관점에 입각해서 감은장아기를 효녀로 보아야 한다. ‘좋은 전생’을 추구하며 우주 섭리와 부합하는 ‘부모 섬기기’가 무속적 효윤리라고 할 때, 이런 효윤리에 충실한 감은장아기는 틀림없는 무속적 효녀이다. 무속적 효윤리의 구현 방법은 두 가지이다. 공간 이동과 신성 확장이 그것이다. 두 가지를 연결하면 무속적 효윤리는 ‘신성을 확장하기 위한 공간 이동’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孝나 신성이나 간에 이념적 성격이 짙은 개념이므로, 무속적 효윤리의 사상적 지향 또한 주목을

\* 영남대 교양학부 교수 / 전자우편: djgigigj@hanmail.net

요한다. 인간 능력을 존재론적으로 성찰한다는 점이 그 한 가지고, 효윤리를 인식론적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이 그 다른 한 가지다.



◆ 주제어

무속적 관점, 효녀, 무속적 효윤리, 신성, 나쁜 전생, 수평적 질서, 존재론과 인식론.

## I. 문제제기

<삼공본풀이>는 제주도 큰곳의 일반신본풀이다.<sup>1)</sup> 일반신본풀이는 일반신의 근본을 풀이하는 서사무가로서 우주론적 차원에서 인간의 행·불행을 조망한다. <삼공본풀이>가 일반신본풀이인 한,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 평범한 여성이던 감은장아가기 질곡과 고난을 이겨내고 효윤리의 영웅이 된다고 했으니, 본풀이의 전승 공식<sup>2)</sup>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효윤리의 영웅이라 하면 ‘유교적 효녀’를 떠올릴 터이지만, 감은장아가기의 경우는 ‘유교적 효녀’와는 거리가 멀다. 부모의 말을 어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효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유교이념에 비추어보면 감은장아기는 불효녀이다. 유교의 불효녀가 무속에서는 효녀로 나타난 바이므로, 감은장아기는 불효녀이면서 효녀이다. 이런 역설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은가?

역설적 현상은 유교적 효윤리와 무속적 효윤리를 견주어보면 해명된다. 유교적 효윤리와 무속적 효윤리는 동이점이 있다. 효의 개념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성’이라고 할 때는 서로 같다. 효윤리의 중심을 부모로 보느냐 자식으로 보느냐 하는 데 이를 때는 서로 다르다. 효윤리의 중심에 대해 유교적 효윤리에서는 부모라 하고 무속적 효윤리에서는 자식이라 한다. 여러 서사무가에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근거이다.<sup>3)</sup> 유교적 효윤리로 감은장아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이니, 무속적 효윤리로써 판단하는 길

1) 제주도 큰곳에 대해 여러 논자들이 다루었다. 대표적인 논자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수자, 「제주도 큰곳 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 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口碑文學研究』12, 韓國口碑文學會, 2001, 231~254쪽.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韓國言語文學』59, 韓國言語文學會, 2006, 233~260쪽.

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59쪽에 의하면, 일반신본풀이는 ‘출생→고행 또는 결연→회혼 또는 파탄→좌정’이라는 구성을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한다.

3)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룬 서사무가로는 <삼공본풀이>와 <바리데기>와 <세경본풀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삼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의 방식을 개척한다. 효윤리의 중심이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 최상이다. 유감스럽게도 유교적 효윤리와 필적하는 ‘체계적인 무속적 효윤리’는 아직 제시된 바 없다. 정황이 이렇다고 해서 체계적인 무속적 효윤리가 마련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체계적인 무속적 효윤리를 추출하고 감은장아기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삼공본풀이>는 체계적인 무속적 효윤리를 추출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부모를 효윤리의 중심으로 여기는 인물과 자신을 효윤리의 중심으로 여기는 인물이 맞서면서 서로 자기네 쪽이 타당하다고 내세우므로, 양쪽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정반대의 효윤리가 도출된다. 부모를 효윤리의 중심으로 여기는 인물은 유교적 효윤리를 표방하고, 자신을 효윤리의 중심으로 여기는 인물은 무속적 효윤리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효윤리에 의하면 부모는 어떤 경우에서나 공경해야 할 절대적 존재이고,<sup>4)</sup> 무속적 효윤리에 의거하면 부모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공경 정도가 달라지는 상대적 존재이다.<sup>5)</sup> 이와 같은 <삼공본풀이>의 효 관련 내용은 다른 어느 서사무가보다 뚜렷하다. <삼공본풀이>가 서사무가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히 서사무가 전체를 조망하기에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는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삼공본풀이><sup>6)</sup>에 나타난 무속적 효윤리를 확인하고, 사상적 차원에서 그 특징을 검출하고자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인공의 행위를

---

4) 유교적 효윤리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이 거론한 바 있다. 대표적인 논자들을 몇 명 들기로 한다. 정운채, 『효자전에 나타난 사대부의 효와 그 심리적 특성』, 『인문과 학논총』34,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0, 51~59쪽.; 趙南旭, 『儒家 孝論과 肉身 孝行의 問題』, 『儒敎思想研究』37, 韓國儒敎學會, 2009, 124~132쪽.; 강명관, 『삼강행실도』-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2~25쪽.

5) 서사무가 중의 <삼공본풀이>에서 효윤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삼공본풀이>를 통해 무속적 효윤리를 판단해볼 수 있다. 감은장아기가 부친을 공경하되 부친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지 않음을 주목할 때, 무속에서는 부모를 상대적 존재로 여긴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6) 장주근, 앞의 책, 124~133쪽에 실린 <삼공본풀이>를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 자료는 구대중 구송본이다.

면밀히 살펴서 무속적 효윤리를 검출한다. 무속적 효윤리는 감은장아기의 旅路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길 떠나기’의 과정은 반드시 살펴야 하는 과제가 된다. 둘째, 무속적 효윤리의 사상적 추이를 따져본다. 주인공이 무속적 효윤리를 구현할 때 유교적 효윤리의 소유자와는 판이한 위치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며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존재론과 인식론의 두 방향에서 무속적 효윤리의 사상적 추이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방향에서 <삼공본풀이>의 위상을 밝힐 수 있으리라 믿는다.

## II. 효의 위상과 그 지향

<삼공본풀이>의 구성은 감은장아기의 ‘전상’신 내력담에 맞추어져 있다. ‘전상’이란 ‘前生’의 의미<sup>7)</sup>로서 불교의 輪回說에서 파생되었다. 불교에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불교 그 자체의 영향은 미미하다. 구송자가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구송자에 의하면 전생의 유형은 두 가지다. ‘좋은 전생’과 ‘나쁜 전생’이 그것이다.<sup>8)</sup> ‘좋은 전생’은 孝에서 비롯되고 ‘나쁜 전생’은 不孝에서 비롯되므

7) 논자에 따라서는 ‘전생’의 의미보다는 ‘운명’이나 ‘팔자’라는 의미로 풀이하기도 한다. 운명이나 팔자를 결정론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타당하지 않을 성싶다. 삼공인 감은장아기가 전생 가운데서 ‘나쁜 전생’을 제거하고 ‘좋은 전생’만을 남겨서 福을 불러들이는 神이므로 운명이나 팔자를 고치는 직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 운명이나 팔자라면 결정론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0쪽의 자료에 “삼공은 전상드리 뉘옵네다. 이간주당 즈손에 모진 전상 내풀리고 조은 전상 일투와 주저 살려옵서(초감제의 <젯드리앉혀 살려옵>, 安士仁 구송본)”라는 문구가 있다. ‘전상’에 ‘모진 전상’과 ‘조은 전상’이 있다고 했으니, ‘전상’의 유형은 두 가지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5, 205~208쪽과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耽羅文化』13, 耽羅文化研究所, 1993, 48~49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로, 불효의 요인을 제거하면 ‘좋은 전생’만 남는다고 본다. 불효의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전생’으로 하여금 금생에 福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孝가 福을 가져오게 하는 요체인 바인데,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孝의 특성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논점을 다지기 위해서는 孝의 특성에 대한 확인 방법이 중요하다. <삼공본풀이>의 구송자가 직접적으로 孝의 특성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무가의 사설을 통해 찾아내어야 한다. 일반적 관례에 따라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의 정성을 孝라 한다면, 무가의 사설에는 孝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다. 사설의 후반부에서나 겨우 발견될 따름이다. 孝가 사설의 후반부에서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타 서사무가도 그러하거나와 <삼공본풀이> 또한 서사의 인과적 구성이 치밀하고 문학적 표현도 풍부하기 때문에,<sup>9)</sup> 사설의 후반부는 전반부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옳다. 후반부에 孝가 나타난다고 할 때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나타나는 ‘孝와 어긋나 보이는 내용’도 단순히 불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삼공본풀이> 전체를 단락<sup>10)</sup> 별로 나눈 다음, 이 점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기로 한다.

- 1) 윗마을의 강이영성이수불과 아랫마을의 홍문소친구에궁전이라는 거지가 서로 만나 부부가 된다.
- 2) 부부는 품팔이를 하면서 살다가 세 딸을 낳는다. 세 딸의 이름은 은장애기, 늦장애기, 감은장애기다.
3. 감은장애기를 낳은 뒤부터 복락이 부부에게 찾아온다. 부부는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큰 부자가 된다.
4. 감은장애기가 15세가 된다. 비 오는 어느 날, 부부는 세 딸을 불러 누구 덕에 사는지를 물어본다.
5. 오직 부모 덕에 산다고 하는 두 딸과는 달리, 감은장애기는 부모 덕과 자기 덕으로 산다고 답변한다.
6. 부모는 노발대발하며 감은장애기를 내쫓고 만다. 감은장애기는 하녀 한 명

9) 심치열, 앞의 글, 233쪽 참조.

10) 사건의 시작과 끝을 하나로 단위로 보고, 그 하나의 단위를 단락이라 칭하고자 한다.

을 데리고 집을 떠난다.

7. 부친이 감은장아기를 불러오라고 두 딸에게 지시했으나, 두 딸은 더 멀리 가기를 원하더라고 한다.
8. 감은장아기는 대노하며, 큰 언니를 용달버섯으로 만들고 작은 언니를 풋버랭이로 만들어 버린다.
9. 부모는 급하게 내닫다가 눈을 다쳐서 소경이 되고 만다. 집은 망하고 부부는 다시 거지가 된다.
10. 감은장아기는 짐을 싣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다가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다.
11. 첫째·둘째 마통이와는 달리, 셋째 마통이는 착하다. 감은장아기는 셋째 마통이를 남편으로 삼아 마를 캔다.
12. 셋째 마통이가 내다버린 돌이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였다. 감은장아기는 이 보물을 취해 거부가 된다.
13. 부모를 찾기 위해 100일 동안 잔치를 연다. 맨 마지막날에 부모가 장님 거지의 상태로 찾아온다.
14. 방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가 감은장아기라고 밝히자, 부부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뜬다.

단락 1~14에서는 감은장아기의 일대기가 나타난다. 감은장아기는 불효녀가 분명하다. 부모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었으며, 부모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고 모든 일을 오직 그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나아갔다. 부모가 싫어할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불효녀로 지탄받아야 할 듯 하나, 뜻밖에도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습득하여 부자가 되었고 부모의 눈까지 뜨게 만드는 영웅이 된다고 하니 종잡기가 어렵다. 종잡을 수 없게 된 까닭이 이해 방식에서 기인하는지 일대기의 내용에서 기인하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이해 방식에서 기인한다. 내용을 종잡을 수 없다고 여기는 독자들은 대개 유교의 효윤리에 입각해서 감은장아기의 일대기를 일방적으로 재단하곤 한다. 그릇된 준칙이 그릇된 이해 방식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감은장

아기의 일대기를 산출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효윤리를 검출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검출한 효윤리를 유교적 효윤리와 대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감은장아가의 일대기를 산출한 문화란 다름 아닌 巫俗 즉 ‘무당과 관련된 종교현상’이다. 무당은 求福的 次元에서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儀禮로써 표출한다. 합리적 사고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굳이 합리적 사고를 채택하지도 않는다. 만약, 구복의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기라도 한다면 합리적 사고도 과감하게 버린다. 전생을 효불효와 관련 지워 ‘좋은 전생’과 ‘나쁜 전생’으로 나누고, 孝로써 ‘나쁜 전생’을 칼질하는 무속적 효윤리가 그 단적인 예이다. 孝로써 ‘나쁜 전생’을 칼질하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 현상을 통해 무속적 효윤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속적 효윤리를 짚어보는 데는 유교적 효윤리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그 까닭은 무속적 효윤리가 여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된 유교적 효윤리와 견주어보면 검출하기가 용이하다. 유교적 효윤리는 『孝經』에 잘 나타나 있다. 『효경』이 시대에 따라 성격이나 위상이 변하기는 했어도<sup>11)</sup> 人倫은 天倫이고 하늘은 부모라고 하며 자식이 효도를 다하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고 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sup>12)</sup>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늘과 동격인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속적 효윤리는 이와 다르다. 부모는 잘 섬겨야 할 대상이기는 하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단락5, 단락8, 단락11에서 그런 점이 확인된다. 구송자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밝혔다고 해도 이보다 더 선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락5, 단락8, 단락11의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단락5에서는 감은장아가가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부친에게 어깃장을 놓는다.<sup>13)</sup> 부모 덕과

11) 강문식,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 『정신문화연구』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8~31쪽 참조.

12) 『孝經』의 <三才章>과 <聖治章>과 <應感章>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13) 이유허,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어와 문화』5,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09, 215쪽 참조.

자기 덕으로 산다고 했으니, 자기 덕을 끌어올려 부모 덕과 수평적 위치에 맞추었다. 단락8에서는 감은장아가 두 언니를 응징함으로써 부모를 슬프게 할 계기를 조성한다. 사람을 식물이나 곤충으로 만들었으므로 생명을 빼앗다고 볼 수 있고,<sup>14)</sup> 그런 자식들을 잃은 부모로서는 슬픔이 클 수밖에 없다. 단락11에서는 감은장아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통이와 결혼한다. 천한 일을 하는 자를 낭군으로 점찍고 은밀하게 혼인까지 했으니 부모가 애통해 할만하다. 감은장아가 부모 뜻을 어긴 까닭을 유교적 효윤리에 비추어 해명하면, 福을 내리는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 믿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무속적 효윤리의 요체이다.

유교적 효윤리 - 하늘이 복의 근원	부모는 절대적 복종의 대상
무속적 효윤리 -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	부모는 상대적 복종의 대상

유교적 효윤리의 경우와는 달리, 무속적 효윤리의 부모는 상대적 복종의 대상이다. 이런 설정은 福의 근원을 삶의 내부에서 찾는 데서 기인한다. 福을 찾는 도구는 용기와 결단력이다. 감은장아가 단락5에서 과감하게 자기 덕으로 산다고 밝히고 단락11에서 결연히 마통이를 남편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 효윤리를 실천하는 <바리데기>의 바리데기나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도 동일선상에서 이해해 볼직하다. 바리데기나 자청비 역시 용기와 결단력으로 삶의 내부에서 福을 찾았기 때문이다.<sup>15)</sup> 주인공이 스스로 삶의 내부에서 福을 찾는 이상, 하늘로부터 福을 받는다고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늘로부터 福을 받지 않으니, 하늘과 동격이라 할 수 있는 부모에게도 절대복종이 필요 없게 되었다. 부모가 상대적 복종의 대상이 되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14) 감은장아기는 첫째 언니를 용달버섯으로 만들고 둘째 언니를 쫓버랭이로 만든다. 구송자는 이런 현상을 ‘환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 언니가 엄연히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환생’을 ‘죽음’으로 이해해야 상황 논리에 맞을 것 같다.  
15) 김봉석, 「바리데기 신화 읽기의 교육과정학적 함의 - 효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29,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 5~11쪽.

부모를 상대적 복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연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문제의 심층에는 존재론적인 연유도 있다.<sup>16)</sup> 무속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본성에 神性を 지녔다고 본다.<sup>17)</sup> 감은장아가 <삼공본풀이> 서두의 神統과 우주 요처에 포진한 “하늘님”과 “지하님”과 “청태산이마고할미”와 결부된다든가<sup>18)</sup> 애초에는 인간이었다가 나중에 신성을 회복한다든가 하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물론, 본성에 신성이 있다고 해서 神은 아니다. 神이 되려면 신성을 인식하고 확장시켜 ‘좋은 전생’에서 구현되는 조화로운 세상 즉 우주 섭리<sup>19)</sup>에 부응해야 한다. 감은장아기는 우주 섭리에 참여하는 데 충실하다. 우주 섭리의 참여 요건에 孝도 들었기 때문에 극진히 孝를 행하지만, 孝와 우주 섭리가 충돌할 때는 우주 섭리 쪽을 취택한다. 부모 뜻을 어기는 행동이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한다.

만약 ‘나쁜 전생’이 우주 섭리에 위배되더라도 한다면 감은장아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보아, ‘나쁜 전생’을 과감하게 도려내려 할 터이다. 단락8에서 두 언니를 용달버섯과 풋버랭이로 만든 까닭을 이런 각도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두 언니는 각기 감은장아기에게 거짓말을 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이로울 수도 있

16) 서사무가의 철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148, 국어국문학회, 2008, 106~116쪽과 신연우, 「여성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50~253쪽을 참조할 만하다.

17)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관념의 단면」, 『비교민속학』43, 비교민속학회, 2010, 368쪽 참조.

18) “하늘님”과 “지하님”은 부친의 질문에 대한 감은장아기의 답변에서 나타나고, “청태산이마고할미”는 고대중 구송자가 마통이 삼형제의 모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19) 이에 대한 근거를 고대중 구송본의 말미에서 얻을 수 있다. “그 술 한 잔 받은 뒤에는 두 소경이 눈이 흰뜩 떠서 이 세상을 살핌데다. 부모조식이 만나서 흥왕케 사옵대다.”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이 문구에서 ‘맹인이 눈을 흰뜩 떠는 세상’ 내지 ‘모든 사람이 흥왕하여 사는 세상’을 회구하므로, <삼공본풀이>에 비추어볼 때 감은장아기가 ‘좋은 전생’에서 구현되는 조화로운 세상 즉 우주 섭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된다.

다. 본성의 신성을 인식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먼 길을 떠나야 하므로,<sup>20)</sup> 먼 길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두 언니가 존재론적으로는 보탬이 될 법도 하기 때문이다. 감은장아기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가치없이 두 언니를 죽여버렸으니, 부모에게 불효하고 우주 섭리에 어긋난다고 여겼으리라 본다. 감은장아기에 있어서 두 언니는 혈육이라기보다는 우주 섭리의 위반자라는 언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니, 효가 무속적 효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 섭리에 부합해야 한다. ‘좋은 전생’에서 구현되는 조화로운 세상 즉 우주 섭리와 부합하는 ‘부모 섬기기’만이 무속의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성의 신성으로 우주 섭리에 참여하면서 ‘부모 섬기기’를 할 때, 비로소 무속적 효로서의 요건을 지닌다. 감은장아기는 그런 요건을 갖춘 자이다. 만약, 감은장아기가 우주 섭리와 충돌하면서 ‘부모 섬기기’를 했더라면 제거되어야 할 불효녀로 낙인찍혔을 터이다. 유교적 효윤리에 비추어볼 때 두 언니를 효녀라고 해야 옳고 감은장아기는 불효녀라고 해야 옳다. 이 점에서 <삼공본풀이>의孝는 우주 섭리를 제쳐놓고 논의될 수가 없다. 우주 섭리는 곧 ‘좋은 전생에서 구현되는 조화로운 세상’이므로,孝는 당연히 조화로운 세상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

### Ⅲ. 무속적 효윤리의 구현 방법

‘좋은 전생’을 추구하며 우주 섭리와 부합하는 ‘부모 섬기기’가 무속적 효윤리라고 할 때, 무속적 효윤리는 상당히 개혁적이다. 이른바 ‘좋은 전생’이 바로 그런 점을 시사한다. 감은장아기가 전생 가운데서 ‘나쁜 전생’을 제거하

---

20) 서사무가의 주인공 가운데 먼 길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리데기>의 바리데기와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조지맹왕아기씨와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그런 인물이다.

고 ‘좋은 전생’만을 남기고자 하므로 삶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혁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을 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감정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는다. 두 언니와 혈육 간이면서도 ‘나쁜 전생’에 속해 있었다고 하여 정치해버린 사건은 그 좋은 예이다. 무속적 효윤리가 이처럼 개혁적이라면 범상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는 없을 터인데, 감은장아가 어떤 방법으로 무속적 효윤리를 구현하는지를 살펴볼 수 없다. 감은장아기는 공간 이동과 신성 확장으로 무속적 효윤리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초점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 1. 공간 이동

감은장아기는 15세<sup>21)</sup>까지 살던 집을 떠나 정치없이 길을 간다. 부친에게 쫓겨났으니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존재론적으로 보아도 집을 나와야 한다. 만약, 감은장아가 집에 머무른다면 부친과 두 언니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 한다. 부친은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고 두 언니는 부친의 가부장적 권위를 추수하므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가부장적 권위 하에서 신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경직된 질서가 생기발랄한 신성을 속박하거나 통제하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감은장아가 집을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볼 때, 감은장아가 집에서 쫓겨나기 위해 부친에게 고의로 도발했다는 언급까지 가능하다. 감은장아기는 도대체 집 밖을 나가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동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필 필요

---

21) 서사무가의 여주인공은 대개 15세에 중대한 사건에 직면한다. 15세라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 분리되거나 독립된다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가씨가 주자대선생을 만났을 때가 15세이고,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왕따님이 추방당했을 때의 나이가 15세이고,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문도령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가 15세이고, <문전본풀이>의 조정승따님이 하늘옥황 수문대장의 아들에게 손목을 잡힐 때가 15세이고,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가 이웃으로 시집갈 때가 15세이다.

가 있다. 감은장아기는 여타 서사무가의 주인공에 비해 여러 공간을 이동하지 않는다. 기껏 ‘깊은 산중’과 ‘마 캐는 곳’이 전부이다. 이 두 공간에는 감은장아기가 “인간체” 즉 ‘인간이 사는 곳’을 탐문할 정도로 人家가 적다. 왜 인가가 적은 곳으로 갔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가부장적 권위를 부정하고 본성의 신성을 인식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인가가 적은 곳으로 간다는 전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하다. 감은장아기의 부모가 각기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살다가 결혼했다고 했으니, 감은장아기는 원래 인가가 많은 곳에서 살았다고 생각된다. 인가가 많은 곳에서는 수직적 질서가 횡행한다고 볼 때,<sup>22)</sup> 수직적 질서와 상반되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인가가 적은 곳으로 갔다고 할 수 있다.

인가가 적은 곳에서 얻으려는 ‘그 무엇’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감은장아기는 인가가 적은 곳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난다. 셋째 마통이가 그런 인물이다. 셋째 마통이는 불손하고 이기적인 첫째와 둘째 마통이와는 다르다. 모친이 감은장아기에게 마당구석을 빌려주었다고 할 때 안방을 빌려주어야 옳다고 하고, 마를 삶아 먹을 때 감은장아기와 모친에게는 중간 부분을 주고, 밥을 지을 때 쌀밥을 해서 감은장아기를 대접한다. 조건 없이 남을 배려할 때 하나로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터인데, 이런 분위기를 수직적 질서에 비추어 수평적 질서라고 지칭할 수 있다. 감은장아기가 셋째 마통이와 체휴한 까닭은 수평적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인가가 적은 곳에서 만난 셋째 마통이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인가가 많은 곳의 수직적 질서’와 맞설 수 있는 동지이다.<sup>23)</sup>

22) 부친이 유별나다든지 독특하다든지 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부친의 수직적 권위는 부친만이 지닌 권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인가가 많은 곳에서 횡행하는 수직적 권위를 부친도 지녔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23) 감은장아기가 걸인 잔치를 기획할 때 셋째 마통이와 긴밀히 협의한다. 남편과 협의하여 중대사를 치른다는 점에서 감은장아기가 셋째 마통이를 동지로 여긴다고 해도 될 것 같다. 해당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낭군님이 낭군님아 우리가 이만치 살아 지니 걸바시 잔치나 흥번 흥기가 어찌호오리까? 걸랑 그리호라 대답호니 감은장애기 씨는 질거이 생각호야 …… 각리로 각면으로 통지를 내어”

수평적 질서는 수직적 질서보다 우위에 있다. 수직적 질서를 표방하는 집단은 몰락하고 수평적 질서를 표방하는 집단은 흥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부친은 수직적 질서를 표방하는 집단을 대변하고, 감은장아기는 수평적 질서를 표방하는 집단을 대변한다. 부친은 감은장아기가 가정을 떠난 뒤 곧 이어 예전처럼 거지생활을 하게 되었으니,<sup>24)</sup> 수직적 질서를 표방하는 집단의 위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감은장아기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이다. 셋째 마통이를 만난 다음부터 일약 거부가 되었으니, 수평적 질서를 표방하는 집단의 위력은 아주 강성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쪽 집단이 우위에 설 것인지는 자명하다. 위력이 강한 쪽이 위력이 약한 쪽을 이기게 되어 있으니, 수평적 질서를 표방하는 집단이 수직적 질서를 표방하는 집단을 압도할 터이다.

수평적 질서를 표방하는 집단이 승리하는 요인은 감은장아기가 이동한 공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감은장아기가 이동한 공간은 ‘깊은 산중’과 ‘마 캐는 곳’이다. ‘깊은 산중’은 기존 세계와는 변별되는 새로운 공간이고, ‘마 캐는 곳’은 조화와 화합의 동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질서의 공간이다. 이 같은 두 공간의 특성이 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수평적 질서를 구축하게 하는 요인이다. 머물러 있는 자는 공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sup>25)</sup> 인가가 많은 곳에 있는 부모나 인가가 적은 곳에 있는 마통이가 다른 세상을 알지 못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양극단의 공간을 오고가는 자만이 공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공간을 오고가는 행위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간 이동’이라 할 때,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간 이동’의 주역만이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전환시킬 수 있다.

수평적 질서가 곧 우주 섭리의 구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은장아기가

---

24)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沈雨晟 譯, 東文選, 1991, 269쪽의 채록본에에서는 감은장아기의 복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은장아기가 가루 한 줌을 뿌려서 부모의 눈을 멀게 하고, 오방신장을 불러 집안을 일시에 망하게 했다고 한다. 부모를 원수로 보았기 때문에 잔혹하게 복수했다고 여겨진다.

25) 조동일,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出版部, 1979, 417쪽 참조.

셋째 마통이와 연대하고 수평적 질서를 구축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았음을 상기해 봄직하다. 수평적 질서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도 같다. 기름이 중요하지만, 기름만으로 자동차가 운행되지는 않는다. 수평적 질서도 마찬가지다. 수평적 질서가 우주 섭리의 요건이기는 해도, 확산 과정을 거쳐야 우주 섭리를 구현할 수 있다. 감은장아가 큰 잔치를 열어 “부모조식이 만나서 흥양케” 산다고 한 점이 수평적 질서를 확산시키고 우주 섭리에 도달한 증거이다. ‘부모’가 인가가 많은 곳을 대변한다고 볼 때, 세상 사람 모두를 우주 섭리에 동참시킨 셈이 된다. 이 모든 변화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간 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공간 이동은 수평적 질서의 전제요 무속적 효윤리의 근거라 할 수 있다.

## 2. 神性 확장

감은장아기는 집을 나오면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인다. 두 언니를 식물이나 곤충으로 만들었으니, 비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할 만하다. 평범하던 감은장아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까닭을 캐볼 필요가 있다. 초월적 존재가 등장해서 감은장아기에게 능력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이 무렵에는 神職을 지니지도 않았다. 외부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 요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사무가에서는 누구나 본성에 神性을 갖추고 태어난다고 한다. 생득적 신성을 끄집어내어 확장하는 자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므로, 감은장아가 신성을 발현해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이해하는 편이 온당하다.

논점을 예각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신성은 ‘신의 성격’ 내지 ‘신과 같은 성격’으로서, 인간과 神의 상동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상동성에 입각해서 신성을 거론하는 한, 신성은 신화적 인물의 특징을 꼬집어 나타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화는 본원과 근원의 순수성을 지향한다. 문학적 관점에서 신화를 재규정하면 화자가 주인공의

대칭적 세계관을 내세워 비순수 요소를 걸러내는 이야기이다. 대칭적 세계관이란 주체와 객체가 독자성을 지니되 대등하면서도 내밀하다고 보는 문화적 시각이므로,<sup>26)</sup> 대칭적 세계관에 위배되는 인물이나 사물은 모두 걸러내어야 할 비순수 요소이다.<sup>27)</sup> 대칭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비순수 요소를 걸러내는 자를 신성 확장자라고 할 때, 감은장아기야말로 비순수 요소를 걸러내는 신성 확장자이다.

<삼공본풀이>에서 걸러내고자 하는 비순수 요소는 감은장아기가 맞서는 수직적 질서이다. 서사무가에서 수직적 질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수직적 질서가 차별·구별·서열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경직된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運命으로 고착되곤 한다.<sup>28)</sup> 운명은 사회 질서를 신분과 계급으로 갈라놓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방해한다. 만약 감은장아기가 수직적 질서를 받아들인다면 운명결정론을 수용해야 하고, 운명결정론을 수용한다면 ‘좋은 전쟁’에서 구현되는 조화로운 세상 즉 우주 섭리를 구현할 수 없다. 당연히 신직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수직적 질서는 우주 섭리를 흐트러뜨리는 주된 요인이므로, 감은장아기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척해야 옳다. 감은장아기가 대칭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수직적 질서를 걸러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직적 질서를 걸러내고자 할 때, 수직적 질서를 표방하는 부모가 관건이 된다. 얼핏 보면 딜레마일 듯하지만, 정작 감은장아기는 딜레마로 여기지 않는다. 부모가 혈육의 정을 떠나 수직적 질서를 대변할 때는 가차없이 어깃장을 놓고 혈육의 정을 표하며 수직적 질서를 벗어날 때는 지성으로 봉양하는 바인데, 이 점이 부모에 대한 감은장아기의 시각을 판단하는 단서이다. 감은장아기는 한 부모를 두 부모로 분리시킨다. 수직적 질서와 연관되는 부모와

26) 신태수, 「<단군신화>의 대칭적 세계관과 그 후대적 변이」, 『民族文化論叢』58,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2014, 586~595쪽 참조.

27) 崔元午,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학연구』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145쪽 참조. 이 글에서는 서사무가의 여성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복수할 때 아주 혹독하게 징벌을 가한다고 한다. <괴뇌깃또>와 <성주풀이>를 그 예로 들고 있다.

28) 장시광, 「운명과 초월의 서사」, 『古小說研究』31, 韓國古小說學會, 2011, 175쪽 참조.

수직적 질서와 연관되지 않는 부모가 그것이다. 감은장아기에게 있어서 전자는 혈육의 부모이되 무속의 부모는 아니고, 후자는 혈육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무속의 부모이다. 이렇게 보면, 감은장아기는 불효녀일 때가 한 번도 없었다. 15세 때는 혈육의 효녀였고,<sup>29)</sup> 큰 잔치를 할 때는 혈육의 효녀이면서 무속의 효녀였다.

감은장아기가 효녀인 까닭은 무속적 효윤리에 의거해야 풀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유교적 효윤리로 보면, 효녀라 하기 어렵다. 무속적 효윤리란 ‘좋은 전생’에서 조화로운 세상 즉 우주 섭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부모 섬기기’이다. 무속적 효윤리는孝를 궁극적 목적으로 보지 않고 우주 섭리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본다. 다시 말해, 감은장아기가 우주 섭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상, 반드시 효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孝는 우주 섭리의 요건이요 효행은 우주 섭리를 구현하려는 신성의 확장 노력이기 때문이다. 신성을 확장하여 삼라만상을 수평적 질서로 바꾸어놓아야 우주 섭리가 구현되는 바이니, 신성이 궁극적으로 우주 섭리를 지향하며 감은장아기로 하여금 한편으로 효를 행하도록 추동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평적 질서를 추구하도록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신성이 감은장아기를 움직인다고 할 때, 감은장아기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신성의 명령을 받기만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신성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신성을 확장시키기도 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 전자에 따르면 감은장아기는 신성에 굴종하는 기계에 불과하고, 후자에 따르면 감은장아기는 자기 의지를 관철하는 주체적 개인이 된다. 두 가지 가능성 중 후자가 옳다. 신성은 누구에게나 있되 부모와 두 언니는 인식하거나 확장시키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성이 확장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정화 기능도 작동되어야 할 터인데, 감은장아기가 나쁜 전생이나 불효나 수직적 질서를 제거할 때 신성의 정화 기능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결

29) 부친이 집을 나가라고 호통을 칠 때 순순히 응하는 행위도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소개 <삼공본풀이> 이외에는 거개 이런 양상을 보인다.

국, 신성은 주변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면서 세상을 수평적 질서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 IV. 무속적 효윤리의 사상적 특징

무속적 효윤리에서는 孝를 궁극적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수평적 질서를 추구하고 우주 섭리를 구현하는 데 긴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孝를 실천하려고 할 뿐이다. 만약 孝가 우주 섭리에 위배되는 경우, 孝를 가차 없이 포기한다. 이 점에서 孝는 의무가 아니며 부모는 상대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孝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면서 우주 섭리의 구현에 긴요하다고 보는 까닭은 孝가 신성을 통해 행해져야 우주 섭리가 구현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 신성은 무속적 孝의 운반자이고 무속적 효행은 '신성의 확장 노력'이다. 무속적 孝나 신성이나 간에 이념적 성격이 짙은 개념이다. 이 개념이 인간과 결부되므로, 인간학적 측면에서 무속적 효윤리의 사상적 특징을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 1. 인간 능력의 존재론적 성찰

여성이 집 밖을 나갈 때 男裝을 하곤 하지만,<sup>30)</sup> 감은장아기는 남장을 하지 않는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까닭이다. 평범한 아녀자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의아하기만 하다. 행적을 두루 관찰해보면, 감은장아기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성을 인식하고 확장시킬 줄 알기 때문이다. 신성을 인식하고 확장시키기만 하면 우주 섭리를 구현하고 신의 경지에 오를

---

30) 흔히들 남장 여인은 고소설이나 설화에서 흔하게 나타난다고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다. 서사무가에서도 나타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문굿무가>의 추양대가 바로 남장 여인이다.

수 있으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듯도 하다. 물론, 감은장아기의 쾌적은 감은장아기만의 몫이 아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신성을 지녔다고 보는 무속적 관점에 의거하면, 신성은 인간 모두가 보유한 몫이다. 평범한 인간도 노력 여하에 따라 神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인간도 신성을 지녔다고 하는 관점은 儒佛에서도 나타난다. 유교에서는 凡人爲聖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孔子가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없고 습관에 의해 품격이 달라진다고 하거나 맹자가 善性이나 赤子之心을 극진하게 발휘하면 누구나 성인이 된다고 하는 논법이 그것이다.<sup>31)</sup> 한편, 불교에서는 佛種性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涅槃經』에서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불성을 지녔다고 하는 언급이 그것이다.<sup>32)</sup> 무속의 신성론이 유교의 범인위성론과 불교의 불종성론과 상당히 유사하다. 유사하다고 할 때, 동이점이 있을 개연성이 많다. 무속과 유교와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本性和 人欲의 관계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볼 만하다. 본성과 인욕의 관계에 대한 시각은 거의 같고, 본성의 구현 방법에 대한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 : 인욕이 본성을 가리면 생득적인 善을 발휘할 수 없다.

차이점 : 본성의 확장 방법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 한다.

유불 - 대체로 정태적이다.

무속 - 대체로 동태적이다.

무속과 유교와 불교에서는 본성이 절대가치와 연관된다고 한다. 공통점은 여기서 생긴다. 무속에서는 본성에 신성이 갖추어졌다고 하며 邪念이 신성을 가려버리면 神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유교에서는 본성에 천리가

31) 신태수, 「退溪 病痛論에 비추어 본 讀書法의 意義」, 『退溪學論集』4, 嶺南退溪學研究院, 2009, 32~33쪽 참조.

32) 유훈우, 「인성과 불성의 비교」, 『인도철학』25, 인도철학회, 2008, 247~248쪽 참조.

갖추어졌다고 하며 인욕이 본성을 가려버리면 천리를 체인할 수 없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본성에 불성이 갖추어졌다고 하며 貪瞋癡 3毒이 본성을 가려버리면 불성을 구현할 수 없다고 한다. 본성을 회복하고 함양하는 문제를 修養이라 할 때, 무속과 유교와 불교는 수양 방법을 서로 달리 한다. 차이점은 여기서 생긴다. 유교와 불교에서는 대체로 敬이니 禪定이니 하며 정태적 차원에서 수양 방법을 설정하고,<sup>33)</sup> 무속에서는 대체로 수직적 질서를 제거한다고 하며 동태적 차원에서 수양 방법을 설정한다. 감은장아기의 행동 체계를 통해 무속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 행동의 원칙

1. 무속적 차원의 효행으로 본성의 신성을 확장시킨다.  
→孝가 신성을 타고 우주 섭리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2. 자신을 판단 주체로 삼고 권위에 휘둘리지 않는다.  
→메사에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다.
3. 개심이 불가능한 자는 응징하고 온정을 베풀지 않는다.  
→언니를 되살리지 않고, 첫째와 둘째 마통이도 방지한다.

#### □ 행동의 결과

1. 뜻을 같이 하는 자와 연대하여 우주 섭리를 구현한다.  
→셋째 마통이와 결혼하여 수평적 질서를 완성한다.
2. 자신의 福을 크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거부가 된 다음, 걸인 잔치를 성대하게 개최한다.
3. 무지몽매한 자를 일깨워서 세상을 올바르게 보도록 한다.  
→부모의 두 눈을 뜨게 할 때,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한다.

---

33)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유교와 불교의 수양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유교에서는 敬과 靜에 입각해서 人欲을 몰아내고 天理를 체인하고자 하고, 불교에서는 禪定이나 澄心에 입각해서 邪心을 몰아내고 見性의 경지에 이르러 수양한다. 이처럼 차이가 있기는 해도, 크게 보아 한 가닥으로 묶을 수도 있다. 천리나 견성이 모두 본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두 종교의 수양 목적이 '정태적 차원의 본성 함양'에 있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행동의 원칙과 결과가 하나가 되어 감은장아기의 행동 체계를 형성한다. <삼공본풀이>의 구송자가 감은장아기의 행동 체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감은장아기의 행동에는 착오가 없다. 매사에 始終이 정연하고 우주 섭리의 구현이라는 큰 틀을 지향하기 때문에 행동 체계가 있다고 보아야 사리에 맞다. 행동의 원칙을 보면 지향 가치를 넓게 설정하되 어느 때나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단호하게 달려 나가고자 한다. 행동의 결과도 신속하게 나타난다. 동지를 규합해서 우주 섭리를 구현하며 자신의 福을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부모와 같은 무지몽매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한다.<sup>34)</sup> 결과에 대한 善不善의 기준은 孝이다. 감은장아기는 大孝를 성취했으니, 감은장아기의 행동 체계야말로 가히 最高善이라 할 수 있다.

감은장아기의 행동 체계에 대해 유불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유교에서는 格物을 강조하면서도 사유 작용에 주안점을 두고 불교에서는 외부세계를 幻이니 迷니 하며 覺에 주안점을 둔다. 감은장아기의 행동 체계는 사유보다는 행동을 앞세우기 때문에, 유교로서는 긍정하지 않으려 할 터이고 불교로서는 용납하지 않으려 할 터이다. 감은장아기의 행동 체계가 유불의 입각점과 다르다는 점에서, 무속의 입장 그 자체에 의거해서 감은장아기의 행동 체계를 평가해야 타당하다. 두 말할 필요 없이 무속의 신성은 野生性이 강하다. 신성이 운반하는 孝 또한 야생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무속적 효윤리가 무엇을 겨냥하는지를 기늠할 수 있다. 인간 존재의 생기발랄한 능력을 긍정하며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주 섭리의 구현에 참여하기를 요청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

34) 고대중 구송본에서 부모의 개심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부모 눈뜨기’를 이중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 눈뜨기’가 육신의 눈을 뜨는 의미로도 읽히고 미망의 상태를 벗어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 2. 효윤리 범주의 인식론적 확장

<삼공본풀이>에는 여러 종교적 요소가 뒤섞여 있다. 감은장아가기가 신성을 확장시켜 우주 섭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무속적 성격이 뚜렷하고, 감은장아가기가 전생의 神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불교적 성격이 뚜렷하고, 부친이 가부장적 권위나 수직적 질서를 내세우기 때문에 유교적 성격이 뚜렷하다. 무속과 유교와 불교의 요소가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삼공본풀이>를 삼교의 합성물이라 할 수 있다. 종교적 요소의 비중이 서로 같은가 하면 그렇지 않다. 효윤리의 측면에서 볼 때, 무속적 성격과 유교적 성격의 경우는 아주 무겁고 불교적 성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비중이 무거운 무속적 효윤리와 유교적 효윤리를 점검하면서 무속적 효윤리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점을 기다듬기 위해서는 서사무가에 왜 유교적 효윤리가 나타나는지를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구송자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해볼 도리밖에 없다. 무속적 효윤리의 결핍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유교적 효윤리를 끌어들이었을 수도 있고, 무속적 효윤리가 인간 존재를 설명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반대편의 유교적 효윤리를 끌어들이었을 수도 있다. 맥락으로는 후자가 옳다. 무속적 효윤리의 감은장아가기가 유교적 효윤리의 부모를 압도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물론, 맥락으로만 해석하고 말 것은 아니다. 무속적 효윤리가 월등했다라면 굳이 유교적 효윤리를 끌어들이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유교적 효윤리의 저력이 만만치 않았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유교적 효윤리와 무속적 효윤리의 관계를 점검한 뒤, 두 효윤리의 관계를 점검해보기로 한다.

	유교적 효윤리	무속적 효윤리
친자 규정	주체와 종속	독자적 위상
인식 준거	사회 규범	자기 본위
지향 가치	부모	우주 섭리
과급 범위	인가와 가정	인간과 만물

친자 규정, 인식 준거, 지향 가치, 과급 범위는 유교적 효윤리와 무속적 효윤리를 견주어보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유교적 효윤리와 무속적 효윤리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친자 규정과 인식 준거를 보면 자식의 위상이 상당히 다르다. 유교적 효윤리의 경우는 자식을 일정한 틀에 가두어 두고자 하고, 무속적 효윤리의 경우는 자식을 자유롭게 독립적 위치에 두려고 한다. 자식의 위상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효윤리의 지향가치와 과급 범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교적 효윤리의 경우는 영역 내지 대상이 협소하거나 적은 편이고, 무속적 효윤리의 경우는 영역 내지 대상이 광대하거나 많은 편이다. 유교적 효윤리와 무속적 효윤리가 이처럼 상이하므로,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사건은 두 효윤리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사례이다.

- **사건** : 부친과 감은장아기의 충돌 사건
- **경위** : 부친이 “너는 누구 덕에 福을 누리며 사느냐?”고 묻자 감은장아기가 “부모 덕도 없지는 않으나, 어디까지나 내 덕에 福을 누리며 산다.”고 대답한다. 격분한 부친이 감은장아기를 집 밖으로 내쫓고 만다.
- **성격** : ‘福은 부모에게서 오는가,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가?’에 대한 가치론적 논쟁
- **결과** : 부친에 대한 감은장아기의 승리

사건의 성격이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는 마치 부친과 자식의 말다툼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福의 出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낸다. 사건의 핵심이 ‘부친의 체면 세우기’라면 감은장아기가 못 이기는 체하고 넘어갔을 터

이나, 가치론적 관점을 폐기해야 할 상황인지라 못 이기는 체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福이 부모에게서 온다고 해버린다면 유교적 효윤리에는 잘 들어맞겠지만, 본성의 신성을 확장시켜 孝을 넓히고 우주 섭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무속적 효윤리와는 어긋나고 만다. 감은장아가기가 부친에게 승복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무속적 효윤리와 유교적 효윤리가 첨예하게 맞붙을 때 무속적 효윤리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 유교적 효윤리와는 달리, 무속적 효윤리는 넓은 영역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우주의 생기를 흡입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무속적 효윤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채롭고, 친자 관계가 무속적 효윤리와 유교적 효윤리의 우위 다툼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 이채롭다. 가치론적 논란을 부각시키고 무속적 효윤리의 우월성을 강조하느라고 친자 간의 갈등 관계를 설정했으리라 본다. 이 과정에서 무리수가 없지는 않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모가 함께 장님이 된다든지 부유하던 가세가 하루아침에 탕패된다든지 하면서<sup>35)</sup> 유교적 효윤리를 왜소하게 만들어버린 점이 그것이다. 단점은 작고 장점은 크다. 장점은 무속적 효윤리를 유교적 효윤리와 대응시키고 효윤리의 인식론적 판도를 넓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유교적 효윤리가 왕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점으로 상쇄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35) 부친은 “풍뎡 작대기에 눈을 띄여 전판서 전소경이 되고” 모친은 “문원산에 눈을 띄여 전판서 전소경이 되”었다고 한다. 실수가 지나칠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의 눈 하나 정도는 잃을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큰 실수를 했고 그 실수로 다같이 두 눈을 잃었다고 하니, 현실성이 없다. 또한 “가혹은 천하가 나서 멸망시”켰다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내쫓았다고 해서 그 부모를 하늘에서 일시에 알거지로 만들었다고 하니, 현실성이 더욱 없다.

## V. 결론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기는 효녀이면서 효녀가 아니다. 무속적 관점에서 보면 효녀이고,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효녀가 아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효윤리의 중심을 제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데서 기인한다. 무속에서는 효윤리의 중심에 자식을 두고, 유교에서는 효윤리의 중심에 자식을 둔다. 감은장아기는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인물이므로, 무속적 효윤리에 입각해서 감은장아기의 효의식과 그 사상적 지향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감은장아기는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부모 뜻을 어기고 쫓겨났다가 거부가 된 뒤 부모를 잘 섬기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다. 효가 무속적 윤리 체계의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효를 단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무속적 효윤리의 체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신성으로 ‘나쁜 전생’을 몰아내고 우주 섭리에 참여하면서 ‘부모 섬기기’를 할 때 효가 된다. 무속적 효윤리에 의거할 때, 우주 섭리에 부합하는 ‘부모 섬기기’만이 무속적 효윤리에 입각한孝이고, 우주 섭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모 섬기기’는 무속적 효윤리와 어긋나는 불효이다.

무속적 효윤리의 구현 방법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공간 이동이다. 감은장아기는 깊은 산중으로 가서 수평적 질서를 공고히 한다. 수평적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부친이 대변하는 수직적 질서를 압도할 수 있었으니, ‘공간 이동’은 정체성을 찾고 능력을 배양하는 과업이 된다. 다른 한 가지는, 신성 확장이다. 감은장아기가 신성을 통해 효를 행하자 ‘나쁜 전생’이 사라지고 수평적 질서가 구축되었으니, 신성을 우주 섭리 구현의 씨앗으로 삼았다고 할 만하다. 둘을 연결해 보면 무속적 효윤리는 결국 ‘신성을 확장하기 위한 공간 이동’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무속적 효나 신성이나 간에 이념적 성격이 짙은 개념이다. 이 개념이 인간과 결부되므로, 인간학적 측면에서 무속적 효윤리의 사상적 지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인간의 능력을 존재적으로 성찰한다는 점이다. 신성을 통해 구현되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생기발랄하다고 하며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주 섭리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둘째, 효윤리의 범주를 인식론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이다. 무속적 효윤리를 유교적 효윤리와 대응시킴으로써 효윤리의 인식론적 판도를 한껏 넓혔으니, 그 장점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논문은 2016년 6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6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8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김봉석, 「바리데기 신화 읽기의 교육과정학적 함의 - 효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29, 한국교육과정학회, 2011, 5~11쪽.
- 강명관, 「『삼강행실도』-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2~25쪽.
- 강문식,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 『정신문화연구』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8~31쪽.
-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관념의 단면」, 『비교민속학』43, 비교민속학회, 2010, 368쪽.
-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이공·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50~253쪽.
- 신태수, 「<단군신화>의 대칭적 세계관과 그 후대적 변이」, 『民族文化論叢』58,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2014, 586~595쪽.
- 신태수, 「退溪 病痛論에 비추어 본 讀書法의 意義」, 『退溪學論集』4, 嶺南退溪學研究院, 2009, 32~33쪽.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韓國言語文學』59, 韓國言語文學會, 2006, 233~260쪽.
- 이수자,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 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口碑文學研究』12, 韓國口碑文學會, 2001, 231~254쪽.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5, 205~208쪽.
- 이유경,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어와 문화』 5,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09, 215쪽.
- 유훈우, 「인성과 불성의 비교」, 『인도철학』25, 인도철학회, 2008, 247~248쪽.
- 장시광, 「운명과 초월의 서사」, 『古小說研究』31, 韓國古小說學會, 2011, 175쪽.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59쪽.
-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沈雨晟 譯, 東文選, 1991, 269쪽.
- 정운채, 「효자전에 나타난 사대부의 효와 그 심리적 특성」, 『인문과학논총』34,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0, 51~59쪽.

- 趙南旭, 「儒家 孝論과 肉身 孝行의 問題」, 『儒教思想研究』37, 韓國儒敎學會, 2009, 124~132쪽.
- 조동일,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出版部, 1979, 417쪽.
- 崔元午,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학연구』9, 한국구비문학회, 1999, 145쪽.
- 허남준,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148, 국어국문학회, 2008, 106~116쪽.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耽羅文化』13, 耽羅文化研究所, 1993, 48~49쪽.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 각, 2007, 60쪽.



Abstract

## A Study on the Orientation of Shamanistic Filial Ethics in Samgongbonpuri

Shin, Tae-soo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Gameunjangagi of Samgongbonpuri since she is a filial daughter from a shamanistic perspective and is not one from a Confucian perspective. Since she appears in a work of narrative shamanism, it is needed to examine the causes from a shamanistic perspective. She should be understood in the system of shamanistic filial ethics since filial duty is one of the components of shamanistic ethics system. One will finally perform his or her shamanistic filial duty when he or she dispels a "bad previous life" with the divinity of nature, participates in the universal providence, and "serves his or her parents." There are two patterns of embodying shamanistic filial duty: horizontal ordering through a journey and horizontal ordering through divinity. When the two are connected, shamanistic filial duty seems to be embodied in the form of "hitting the road to expand divinity." Since both filial duty and divinity are concepts of strong ideological nature,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shamanistic filial ethics. One is to examine the human abilities in an ontological manner,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scope of filial ethics in an epistemological manner.

**Key Words** : a shamanistic perspective, a filial daughter, shamanistic filial ethics, the divinity, bad previous life, horizontal ordering, ontology and epistemology.

K C I